제47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 토론 자료

–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 김명준 –

○ 발제자가 말씀하신 “목표지향적인 민첩한 인공지능(AI: Artificial Intelligence) 기술 개발”이 현재 진행 중인 무척 빠른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선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동의하면서, 관련 기초연구도 중장기적으로 같이 배양해야함.

- 알파고가 제한 시간 안에 바둑을 둘 수 있는 것은 고차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 1,000개가 넘는 CPU로 구성한 고성능 컴퓨팅 기술이 있기에 가능함. (발제자도 발표자료 19쪽에서 비슷하게 언급함.)
-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고도의 수학 지식과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계학 지식이 필수임. 이는 마치 바닷물 밑에 숨겨진 빙산(氷山)의 밑 부분에 해당함. (발표자료 41쪽에서 언급함.)
- 따라서 고성능 컴퓨팅, 수학, 통계학 등 관련 기초연구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해야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음.

○ 인공지능 관련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(OSS: Open Source Software)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조하였으나(발표자료 42쪽), 국내의 AI 관련 공개 소스 SW 활동 수준은 아직 남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활용하는 수준이다.

- 국제 개발자 공동체(community)에서 소프트웨어 생산에 참여하는 단계까지 발전해야 함.
-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개발자 훈련과 양성, 국제 OSS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장기 관련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관한 정책 개발과 투자가 필요함.

○ “Software is Eating the World”(발표자료 62쪽)의 원래 제목은 “Why, Software is eating the World” 이다.

- “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 삼킨다”라고 겁주는 내용이 아니라 “소프트웨어와 잘 융합하면 잘 살 수 있다”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.